"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1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3월 6일 월요일(음력 2월 15일)

# 8년 표류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 판가름

### 환경부, 오늘 2공항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발표
### '동의'시 후속절차 진행… '부동의'시 사실상 중단
### 도 "이미 두차례 보완 요구… '반려' 가능성 낮아"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5년 11월 제2공항 후보지(서귀포시 성산읍) 발표 후 찬반 갈등으로 인해 7년 넘게 표류해 온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마무리하고 6일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한다.

'동의' 의견을 낼 경우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토지보상 등 향후 추진 일정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제2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향후 과정(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기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의' 할 경우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이미 2차례 보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려'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요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서 할 수 있지만 보완 요청은 두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반려를 결정하면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착수해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지 이주 방안 등을 보완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일(6일) 국토부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3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제주 오현고(37회), 연세대 법대(93학번)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부패)/행정(조세)]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영장전담]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부패)]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민사항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민사합의(기업)]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서울제2중재부장)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문 성 관 올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7·18층
대표전화 : 02-2046-1300 | 직통전화 : 02-2046-0855

**차귀도를 배경으로 '찰칵'** 4일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손에 잡힐듯이 다가선 차귀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제주에서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2공항 반대 단체 "환경부, 협의 '부동의'를"

### 강행저지비상도민회, 오 지사에 주민투표 등 건의
### 도 "발표 따라 관련 입장 표명… 도정 역할 고민"

제주 제2공항관 관련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법정기한이 6일자로 만료되는 가운데, 반대 단체들이 환경부에 협의 부동의 판단 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건의문에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진행에 도지사 유감 표명,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국토교통부에 요청, 국토부가 주민투표 거부 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비협조 약속, 관련 조례에 근거한 주민투표 방식으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자리에서 강원보 대표는 "제주의 시간이 온다는데 도민이 반대하고 도민이 결정하면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제2공항 추진은 도민들이 막아낼 수 있으며 주민투표 요청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제2공항 추진이 국책사업라는 명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도민이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우리 애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가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곧 환경부의 발표가 있게되면 그 발표에 따라서 관련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결정권이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도정의 역할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날 제주제2공항백지화를 위해 싸우는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등 14개 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멸종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라"며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부동의를 촉구했다.

또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도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계획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하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탄력?… 3면 / 제주-중국 하늘길 훈풍 불까… 5면

## 재난상황 신속 대응할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 도, 음성통보시스템 등 정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복잡·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12억6000만원을 투입해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예상 시 긴급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5개소 등 노후 예·경보시설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2019년부터 도내에서 운영 중인 예·경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노후시스템 교체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개소 중 235개소를 지난해까지 교체 완료했으며, 45개소를 올해 말까지 교체해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 시 재난방송을 마을단위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민방위 경보 및 재난문자 등 대국민 재난경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도민안전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재난 상황관리와 도내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통합한 상황경보 통합상황실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개소, 자동강우량시스템 61개소, CCTV시스템 50개소, 자동적설관측시스템 12개소, 재난전용영상회의시스템, 재난문자시스템, 민방위경보시스템 61개소 등 분산·운영돼온 시스템을 통합 상황실로 기능·공간적으로 통합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췄다. 재난상황 발생 즉시 관련부서, 긴급재난문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해 2019년 189건, 2020년 375건, 2021년 703건, 2022년에는 607건을 상황 전파해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강다혜기자